

# 큰 재앙 속에서 쓴 눈물의 작품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1:1-3, 빌립보서 3:17-21

정윤돈 목사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24시 성령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가정, 개인, 사회,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흑암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후대 램넛들이 복음 서밋, 기능 서밋이 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세상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후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충만함으로 어둠을 거스리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이끄는 빛과 소금 같은 전도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듣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아서 나의 삶과 생각,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다가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은 원자폭탄을 맞지 말고 축복의 폭탄을 맞으시길 바란다. 우리가 계속 잘 못하면 원자폭탄 맞는 일이 생긴다.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 앗수르, 아람, 블레셋,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는 그 주변 강대국과 여진들이 다 축복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에는 주변 모든 강대국이 여호와의 책역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 틀린 부분을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 계속해서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면, 결국 가정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게 된다. 어떤 학생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지도자의 이야기도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문제가 온다. 당연히 사고가 터지고 불행이 오게 된다. 술 마시는 친구를 계속 만나면 술이 늘고, 도박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면 도박이 늘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예배를 계속 드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매일 기도수첩하고 3오늘 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마음에 항상 생각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행복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제자가 되어 있게 된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계속 하면 연쇄살인범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양육하고, 축복받게 만들 생각을 하면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은 수십, 수백 년을 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저주받을 길로 걸어갔다.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실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서론

(1)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자.

① 앗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다.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나라다.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 이곳은 사마리아에서 850km 떨어진 곳이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 이 니느웨는 과거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의 하나다. 오래된 성이라는 말이다. 창 3장 문제, 창 6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창 11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가 천여 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재앙과 저주로 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언약을 놓고 근본적인 복음을 모르면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앙과 저주가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다. 여러분이 교회를 반대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과 후대는 계속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나 중심, 내 생각과 방법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 부분을 깨뜨려야 한다. 계속 말

씀을 붙잡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고 말씀 중심이 된다. 그 혼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이 불신앙을 이스라엘이 계속 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계속 활동해 보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어쩌다 한 번 예배 안 드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놓치면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된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실적으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② 세월이 지나서 이 앗수르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침공해 왔다. 히스기야 왕이 이시야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앗수르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든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가 아직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앗수르를 이기지 못했다. 앗수르가 46개 유다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 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군사를 쫓고 이 나라를 구하셨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이후에 일어난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했으나, 그 자손인 왕들은 아버지가 발견한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중에는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종적자들이 잘 깨닫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2) 이때 40여 년 동안 활동한 인물이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 2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다. 램넛, 청년 때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후에 왕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을 계속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율법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예레미야애가다. 예레미야애가는 매 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와 같다. 1, 2, 4, 5장은 22절로 끝나며, 3장은 이것이 세 번 반복되어 66절로 끝난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 환난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성경을 정리했다. 그 제자들로서 1차 포로 때 끌려간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들었다. 아무도 듣지 않은 줄 알았는데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우상에게 무릎꿇지 않았다. 마음에 뜻을 정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이 후대에게 전달된 것이다. 결국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빠져 버리면 안 된다. 문제 속에서 예레미야는 역사를 정리했다. 바른 메시지를 증거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52장의 예레미야서다. 열왕기상하나 역사서도 예레미야가 정리했다는 학자가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애가를 남겼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기의 환과 소망,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메시지로 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 1. 하나님을 떠난 당시 유다 민족과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1) 유다 민족이 당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① 애1:1에, 과거에 번성했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다. 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②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게 되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매주 제사를 지냈고, 절기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다. 애1:4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피함이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③ 보물도 다 빼앗겼다. 애1:10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것을 애굽에 다 빼앗겼다. 그때 뺏긴 것인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아깝다. 예수 믿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다.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얻어놓고 있다. 불신자의 삶은 다 얻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빼앗겨 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예배하고, 주일을 지

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대부분 성도들이 안 믿고 있다. 참 성공의 반열에 여러분과 후대가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④ 심지어 엄마가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따지는 것이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의 양심에 대답하신 것이다. “내가 참을 만큼 참은 것이다. 너희 역사를 정리해 보라.” 이어서 열왕기상하로 정리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해보도 방법이 없다. 다 쓸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고쳐도 고쳐도 더 이상 안 되면 다 부숴 버려야 하지 않나.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앗수르를, 바벨론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고 전했다. 어쩔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참다 참다 못해서 폭발하는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거기에서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기회는 그때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복의 근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 (2)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당한 고통이 있다.

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젊은 시절에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도 없었다. 소돔과 고모라 때는 의인 열 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때는 의인 한 명이 없었다. 예레미야는 너무 외로웠던 상황이었다.

②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 뜰이 무슨 뜰인가? 시위대 뜰에 있던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이다. 렘38:6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고 했다. 애3:54에 보면,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물이 쏟아지고 비가 오는 곳이었다. 심히 깊은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다. 얼마나 힘든 환경인가. 이 어려움을 40년 동안이나 당했다.

③ 애3:3-6에 보면, 마치 이 모습은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갇혀있는 것과 같았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느니라.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책적으로 맞아야 했다. 캄캄한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이었다. 이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 답을 얻고 정리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저주가 오는구나. 우리 후대가 이 재앙과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야만 되겠구나.’

## 2.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 고통과 저주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3:33을 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왜 그 문제가 왔는가? 왜 그 꾸지람을 들었는가? 왜 그 질병이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라. 오래된 것이다. 과거에 여러분이 다 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자신, 부모, 조상에게 그 원인이 다 있었다.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까지 바뀌어야 한다. 해방되어야 한다. 매이지 말아야 한다. 복음으로 그 흑암을 쫓아야 한다. 그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이다. 자기 나쁜 점이 어느 조상에게서 왔는지 보고, 흑암을 쫓아라. 절대 닳지 말고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1)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우리들이 고난, 전쟁, 재앙, 저주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3장, 6장, 11장, 행13장, 16장, 19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개인과 후대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의 뿌리가 없이 공부하면 그 공부가 자녀를 죽인다. 신학 공부를 해도 그 신학이 자녀를 죽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을 바꿔야 한다.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문제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오래 되었다. 폐암이 그냥 걸리는가? 담배를 오래 피웠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램넌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어떤 증독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나서 바꾸는 것은 어렵다. 알콜 중독, 도박 중독은 주변 사람과

친척까지 다 망하게 한다. 도박에 빠지면 맑은 정신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다 꾸어가지고 가서는 날려 버린다. 그런 도박 중독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시절에 짤짤이 하다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이 문제가 너무 많다. 교회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다.

(2)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가난한 자의 머리의 티끌까지 다 걷어가 버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뒤엎을 수밖에 없었다. 이 현장을 바꿔야만 한다.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서 조용히 빛을 비춰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살려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3) 왕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고, 영적 육신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를 잃어버렸다. 피 제사, 원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복음과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행했다. 빌3:19에,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라고 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가정, 개인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멸망밖에 없다. 그 재앙을 막아야 한다. 알려주어야 한다.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 리더였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개혁했는데 1천 년, 2천 년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이 혹시 고난, 좌절 속에 있다면,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천 년의 축복을 받도록 갱신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바꾸시기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생활 가운데 21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릭방의 언약이 회당 중심으로 회복되었다. 전도, 선교가 회복되었다는 말이다.

(2)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곳곳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3)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을 받은 램넌트들이 회복되었다. 그것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었다. 우리 램넌트들이 환경이 어려운가? 그 속에서 오히려 시대를 살리고 그 가문을 개혁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4) 일심, 전심, 지속의 응답을 받았다. 구약 39권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는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워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

(5) 또, 포로 기간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민족 문화를 이뤄 나가게 되었다.

(6) 그들은 고난을 통해 24시간 성전 중심의 가정 문화를 만들었다. 저녁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친다. 한 명 한 명 자녀에게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친다. 결국 그러니까 25세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7) 이런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전회위복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시대, 민족, 분야를 살릴 대표적인 응답을 받도록 불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다윗 같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예레미야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